

황제내경 경맥편 오장맥사후(五臟脈死候)의 형성 과정에 관한 고찰

김기왕^{1*}

1.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process of terminal stage symptoms of five viscera meridians in Huangdineijing Lingshu Jingmai (黃帝內經·靈樞·經脈)

Kiwang Kim¹

1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Objectives

The Jingmai (經脈) chapter of Huangdineijing Lingshu (黃帝內經·靈樞) describes the symptoms of death in five types of body compositions associated with the meridians of the Five Viscera. Thanks to several recent excavations, we now know how the content of this paragraph was formed. In this paper, I describe its formation procedure sequentially.

Methods

By comparing 3 excavated articles and 3 major classics written in Eastern Han (後漢) to Jin (晉) era, formation procedure of above symptoms were analysed.

Result and conclusions

It is showed that before Huangdineijing, the descriptions of these symptoms were not static and varied somewhat. With the addition of prognosis, connection to meridians, and the addition of the Viscera theory, the knowledge surrounding this symptoms was becoming complete.

Key words

Tianhuiyijian, Yinyangmaisihou, meridian-related symptoms, Huangdineijing, terminal stage syndrome.

* 교신저자 : Kiwang Kim /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Korean Medicine, 49, Busandaehak-ro, Mulgeum-eup, Yangsan-si, Gyeongsangnam-do, Republic of Korea. 50612.

Tel : +82-51-510-8466 Fax : +82-51-510-8420 E-mail : kimgiwang@hanmail.net

• 원고접수일 : 2023. 09.02 / 심사완료일 : 2023. 09.15 / 게재결정일 : 2023. 09.25

I. 서론

『황제내경·영추(黃帝內經·靈樞)』 「경맥(經脈)」편에는 12경맥의 주행과 병증을 소개한 단락에 이어 경맥의 기가 단절되었을 때 나타나는 7개 부류의 위중(危重) 증상이 소개되어 있다. 즉 오장의 경맥과 연관된 모(毛), 혈(血), 육(肉), 골(骨), 근(筋)이란 인체 구성 요소가 생명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하 五臟脈死候로 지칭함)과 5개의 음경맥(陰經脈), 6개의 양경맥(陽經脈)이 생명력을 잃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각각 제시되어 있다¹⁾. 여기에 나타난 증상들을 누가, 언제, 어떠한 근거로 문헌에 수록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최근 황제내경 성립 이전에 저작된 것으로 보이는 출토 문헌이 여러 종 발굴됨에 따라 이 단락의 내용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지금의 『황제내경·영추』에 나타난 형태로 완성되었는지에 대해 다소의 역사적 추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저자는 『황제내경』의 선행 원전이라 할 수 있는 마왕퇴(馬王堆) 출토 문헌 『음양맥사후(陰陽脈死候)』(1973년 발굴), 장가산(張家山) 출토 문헌 『맥법(脈法)』(1983년 발굴), 천회진(天回鎮) 출토 문헌 『

맥서·상경(脈書·上經)』(2012년 발굴)의 유관 단락을 분석한 결과 현행 「경맥」편의 오장맥사후(五臟脈死候)가 형성된 과정을 과거에 비해 구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아래에 보고한다.

II. 재료와 방법

『황제내경·영추』²⁾의 「경맥(經脈)」편에 등장하는 오장맥사후(五臟脈死候)를 설명한 문장을 다음 문헌과 비교하였다.

첫째, 1973년 중국의 호남성 장사시(長沙市)의 마왕퇴(馬王堆) 3호 한대 분묘에서 발굴된 백서(帛書) 형태 문헌 『음양맥사후(陰陽脈死候)』의 원문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문구의 정확한 인용을 위해 1975년 『문물』지에 발표된 최초의 판독문³⁾과 이후의 재판독 결과⁴⁾를 참조하였으며 일부 문자의 의미 확인을 위해 주석서⁵⁾도 참조하였다.

둘째, 1983년 중국 호북성 강릉시(江陵市)의 장가산(張家山) 한대 분묘 M247에서 출토된 죽간 문헌 『맥서(脈書)』의 원문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이 역시 『문물』지에 발표된 최초(1989년)의 판독문⁶⁾과 주석서⁷⁾를 참조하였다.

셋째, 2012년 중국 사천성 성도시(成都市)의 천회진(天回鎮) 3호(M3) 한대 분묘에서 발굴된 죽간 문헌 『맥서·상경(脈書·上經)』의 원문을 비교 대상으로 하였다. 이 문헌은 2012년 10월 수습된 이래 오래도록 판독 결

1) 원문은 다음과 같다: 手太陰氣絕, 則皮毛焦。太陰者, 行氣溫于皮毛者也, 故氣不榮則皮毛焦, 皮毛焦則津液去皮節, 津液去皮節者則爪枯毛折, 毛折者則毛先死。丙篤丁死。火勝金也。手少陰氣絕, 則脈不通, 脈不通則血不流, 血不流則鬢色不澤, 故其面黑如漆柴者, 血先死。壬篤癸死。水勝火也。足太陰氣絕者, 則脈不榮肌肉。脣舌者, 肌肉之本也, 脈不榮則肌肉軟, 肌肉軟則舌萎人中滿, 人中滿則脣反, 脣反者, 肉先死。甲篤乙死。木勝土也。足少陰氣絕, 則骨枯。少陰者, 冬脈也, 伏行而濡骨髓者也, 故骨不濡則肉不能着也, 骨肉不相親則肉軟却, 肉軟却故齒長而垢, 髮無澤, 髮無澤者骨先死。戊篤己死。土勝水也。足厥陰氣絕, 則筋絕。厥陰者肝脈也, 肝者筋之合也, 筋者聚于陰器, 而脈絡于舌本也。故脈弗榮則筋急, 筋急則引舌與卵, 故脣舌卷卵縮, 則筋先死。庚篤辛死。金勝木也。五陰氣俱絕, 則目系轉, 轉則目運, 目運者為志先死, 志先死則遠一日半死矣。六陽氣絕, 則陰與陽相離, 離則腠理發泄, 絕汗乃出, 故旦占夕死, 夕占旦死。

2)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3)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 馬王堆漢墓出土醫書釋文(一). 文物. 1975; (6): 1-5.

4) 江陵張家山漢簡整理小組. 江陵張家山漢簡《脈書》釋文. 文物. 1989; (7): 72-74. (馬王堆帛書《脈法》重譯)

5) 周一謀, 蕭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6) 江陵張家山漢簡整理小組. 江陵張家山漢簡《脈書》釋文. 文物. 1989; (7): 72-74.

7) 高大倫. 張家山漢簡《脈書》校釋. 成都. 成都出版社. 1992.

과가 발표되지 않아 그 내용을 알기 어려웠으나 2023년 2월말 천회진 출토 문헌 전체의 판독문과 주석⁸⁾이 발표되어 비로소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황제내경』 성립 시기와 비교적 가까운 시기의 유사 문장 또는 동일 문장을 수록한 자료인 『황제팔십일난경(黃帝八十一難經)』(이하 『난경』으로 약칭), 『황제침구갑을경(黃帝鍼灸甲乙經)』(이하 『갑을경』으로 약칭), 『맥경(脈經)』의 오장맥사후 유관 단락을 참조하였다. 이 3종 문헌의 원문은 “중국철학서전자화계획(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 웹사이트(<https://ctext.org/zh>)에 수록된 것을 이용하였다.

III. 결과

호북성 강릉시 장가산(張家山)에서 출토된 『맥서(脈書)』(BC 186년 매장)에는 5종 조직의 사후(死候)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사망 징후를 살피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입술이 뒤집어지고 인중이 부으면 근육(肉)이 먼저 죽는다. 잇몸이 가지런해지고(잇몸의 변연이 직선에 가까워지고) 이가 길게 드러나면 뼈가 먼저 죽는다. 얼굴이 검어지고,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노력 보듯 응시하면 피(血)가 먼저 죽는다. 땀이 실 가득처럼 흐르고 멍친 채 흐르지 않으면 기가 먼저 죽는다. 혀가 말리고 음낭이 멍치면 힘줄이 먼저 죽는다. 죽음의 징후는 모두 다섯인데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먼저 사람을 살리라^{9),10)}

8) 天回醫簡整理組. 天回醫簡(上·下). 北京. 文物出版社. 2023.

9) 마지막 문구 “先活人”은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먼저 사람을 살려라”라는 뜻이 된다. 그러나 문맥상 조금 어색함이 있고 같은 내용을 담은 마왕퇴에서 『음양맥사후』의 내용과 상반된다. 따라서 일부 연구자(韓厚明 2018, 張新俊 2019)는 “先”을 “無(无)”로 해석하였다. 즉 “이 중 하나라도 보이면 사람(환자)을 살릴 수 없다”라는 뜻으로 원문을 해석하였다. 이 해석이 문맥에 잘 어울리지만 원 문헌의 표기 “先”을 “无”로 볼 객관적 근거가 아직 없다. 따라서 본 논고에서는 일단 “先活人”을 글자 그대로 해석하였다.

한편 거의 같은 내용이, 『맥서』보다 10년 앞서 중국의 호남성 장사시(長沙市)의 마왕퇴(馬王堆) 한대 분묘에서 발굴된 『음양맥사후(陰陽脈死候)』(BC 168년 매장)에 보인다.

다섯 가지 사멸을 □□함: 입술이 뒤집어지고 인중이 부으면 근육이 먼저 죽는다. 잇몸이 여위고 이가 길게 드러나면 뼈가 먼저 죽는다. 얼굴이 검어지고 눈을 휘둥그레 뜬 채 비껴 보면 기가 먼저 죽는다. 땀이 실 가득처럼 흐르고 멍쳐서 흐르지 않으면 피가 먼저 죽는다. 혀가 푹 꺼지고 음낭이 말리면 힘줄이 먼저 죽는다. 다섯 가지 중 일부라도 나타나면 살지 못한다.¹¹⁾

이상의 두 가지 문장은 모두 경맥의 주행과 유관 증상을 설명한 단락 뒤에 첨부되어 있다. 이는 현행 『황제내경·영추』의 「경맥」 편에서 12경맥의 주행과 경맥 병증을 설명한 단락 뒤에 7종의 사후(死候)를 설명한 것과 같은 형태의 내용 배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012년 중국의 사천성 성도시(成都市)의 한대 분묘에서 발굴된 『맥서·상경(脈書·上經)』에는 이 문장이 안면부 색진(色診)을 설명한 단락과 눈의 색진을 설명한 단락 사이에 끼워져 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술이 뒤집히고 인중이 부으면 근육이 이미 죽은 것이다. 갑과 을□에 (생명이) 다하며 …… 땀이, 꿰어진 구슬 같이 배출되고 멍쳐서 흐르지 아니하면 기가 이미 죽은 것이다.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침이라면 저녁에 죽고 저녁이라면 아침에 …… 얼굴이 어둡고 자색이 나타나면 …… 혀가 말리고 □이 차가워지면 ……¹²⁾

10) 凡視死徵: 唇反人盈, 則肉先死; 齧齊齒長, 則骨先死; 面墨, 目圓視離, 則血先死; 汗出如絲, 搏而不流, 則氣先死; 舌拮橐拳, 則筋先死. 凡徵五, 一徵見, 先活人.

11) □□五死: 唇反人盈, 則肉先死; 齧瘠齒長, 則骨先死; 面黑, 目環視喪, 則氣先死; 汗出如絲, 搏而不流, 則血先死; 舌拮橐卷, 則筋先死. 五者扁有, 則不枯矣. * □는 훼손이 심해 판독되지 못한 1자의 한자를 표시.

12) 唇反人盈, 肉已死, 甲及乙□已□. 汗出如貫珠, 搏不流, 氣已死. 朝則夕死, 夕朝□. 面黑紫□. 舌卷□寒□. * □는 글자 수를 확정할

여기에 나타난 근육의 사후(死候)는 같은 분묘에서 발굴된 또다른 문헌인 『경맥』에도 나타난다¹³⁾.

『황제내경』 이전에 성립된 문헌에 나타난 육(肉), 골(骨), 기(氣), 혈(血), 근(筋) 5종 조직의 사멸 징후는 『황제내경·영추』의 「경맥」 편에 크게 확장된 내용으로 나타난다¹⁾. 여기에는 5종 조직 이외에 5개 음경, 6개 양경의 사멸에 수반되는 2개 부류의 증상이 추가되어 있고 각각의 증상에 연관되는 경맥, 장부, 병기(病機), 예후가 덧붙여져 있다.

『황제내경』 성립 이후 이 단락의 내용은 크게 변동이 없이 전승되어 온 것으로 보이지만 『황제내경』에 시기적으로 근접한 주요 후속 문헌, 즉 『난경(難經)』, 『갑을경(甲乙經)』, 『맥경(脈經)』에 조금씩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아래의 표 1(Table 1)로부터 표 5(Table 5)에 이를 정리한다. 비교의 편의를 위해 각 경맥의 사후(死候)를 설명한 내용을 문장별로 나누어 유사한 내용의 문장끼리 모아 표에 나타내었다.

수 없는 미판독 부분.

13) 원문은 다음과 같다: 人有病平臍, 死。脣反人盈, 肉死。

Table 1. The description on the terminal stage symptoms of the hand Taiyin meridian (手太陰脈) in Han and Jin period major medical classics.

한대(漢代)와 진대(晉代)의 주요 의학문헌에 나타난 수태음맥의 사후(死候)에 대한 묘사. 고딕체 문자는 상호 차이가 있는 부분을 표시.

문장1	
영추	手太陰氣絕, 則皮毛焦。
난경	手太陰氣絕, 卽皮毛焦。
갑을경	手太陰氣絕, 則皮毛焦。
맥경	手太陰氣絕, 則皮毛焦。
문장2	
영추	太陰者, 行氣溫于皮毛者也。
난경	太陰者, 肺也, 行氣溫於皮毛者也。
갑을경	太陰者, 行氣溫於皮毛者也。
맥경	太陰者, 行氣溫皮毛者也。
문장3.1	
영추	故氣不榮則皮毛焦, 皮毛焦則津液去皮節, 津液去皮節者則爪枯毛折,
난경	氣弗營則皮毛焦, 皮毛焦則津液去, 津液去則皮節傷, 皮節傷則皮枯毛折,
갑을경	氣弗營則皮毛焦, 皮毛焦則津液去, 津液去則皮節着, 皮節着則爪枯毛折,
맥경	氣弗營則皮毛焦, 皮毛焦則津液去, 津液去則皮節傷, 皮節傷者則爪枯毛折,
문장3.2	
영추	毛折者則毛先死。
난경	毛折者則毛先死。
갑을경	毛折者毛先死。
맥경	毛折者則氣先死。
문장4	
영추	丙篤丁死。火勝金也。
난경	丙日篤, 丁日死。
갑을경	丙篤丁死。火勝金也。
맥경	丙篤丁死。火勝金也。

영추 = 黃帝內經·靈樞經脈, 난경 = 黃帝八十一難經·二十四難, 갑을경 = 黃帝鍼灸甲乙經·卷二十二經脈絡脈支別第一上, 맥경 = 脈經·卷三·肺大腸部第四

Table 2. The description on the terminal stage symptoms of the hand Shaoyin meridian (手少陰脈) in Han and Jin period major medical classics.

한대(漢代)와 진대(晉代)의 주요 의학문헌에 나타난 수소음맥의 사후(死候)에 대한 묘사. 고딕체 문자는 상호 차이가 있는 부분을 표시.

문장1	
영추	手少陰氣絕，則脈不通，
난경	手少陰氣絕，則脈不通，
갑을경	手少陰氣絕，則脈不通，
맥경	手少陰氣絕，則脈不通。
문장2	
영추	·
난경	·
갑을경	·
맥경	少陰者，心脈也。心者，脈之合也。
문장3.1	
영추	脈不通則血不流，血不流則鬢色不澤，
난경	脈不通則血不流，血不流則色澤去，
갑을경	脈不通則血不流，血不流則鬢色不澤，
맥경	脈不通則血不流，血不流則鬢色不澤，
문장3.2	
영추	故其面黑如漆柴者，血先死。
난경	故面色黑如黧，此血先死。
갑을경	故面色如黧者，血先死。
맥경	故其面黑如漆柴者，血先死。
문장4	
영추	壬篤癸死。水勝火也。
난경	壬日篤，癸日死。
갑을경	壬篤癸死。水勝火也。
맥경	壬篤癸死。水勝火也。

영추 = 黃帝內經·靈樞·經脈, 난경 = 黃帝八十一難經·二十四難, 갑을경 = 黃帝鍼灸甲乙經·卷二·十二經脈絡脈支別第一上, 맥경 = 脈經·卷三·心小腸部第二

Table 3. The description on the terminal stage symptoms of the foot Taiyin meridian (足太陰脈) in Han and Jin period major medical classics.

한대(漢代)와 진대(晉代)의 주요 의학문헌에 나타난 족태음맥의 사후(死候)에 대한 묘사. 고딕체 문자는 상호 차이가 있는 부분을 표시.

문장1	
영추	足太陰氣絶者, 則脈不榮肌肉。
난경	足太陰氣絶, 則脈不營其口唇。
갑을경	足太陰氣絶, 則脈不營口唇。
맥경	足太陰氣絶, 則脈不營其口唇。
문장2	
영추	脣舌者, 肌肉之本也。
난경	口唇者, 肌肉之本也。
갑을경	口唇者, 肌肉之本也。
맥경	口唇者, 肌肉之本也。
문장3.1	
영추	脈不榮則肌肉軟, 肌肉軟則舌萎人中滿, 人中滿則唇反,
난경	脈不營則肌肉不滑澤, 肌肉不滑澤則人中滿, 人中滿則唇反,
갑을경	脈弗營則肌肉濡, 肌肉濡則人中滿, 人中滿則唇反,
맥경	脈不營則肌肉濡, 肌肉濡則人中滿, 人中滿則唇反,
문장3.2	
영추	脣反者肉先死。
난경	唇反則肉先死。
갑을경	唇反者肉先死。
맥경	唇反者肉先死。
문장4	
영추	甲篤乙死。木勝土也。
난경	甲日篤, 乙日死。
갑을경	甲篤乙死。木勝土也。
맥경	甲篤乙死。木勝土也。

영추 = 黃帝內經·靈樞經脈, 난경 = 黃帝八十一難經·二十四難, 갑을경 = 黃帝鍼灸甲乙經·卷二·十二經脈絡脈支別第一上, 맥경 = 脈經·卷三·脾胃部第三

Table 4. The description on the terminal stage symptoms of the foot Shaoyin meridian (足少陰脈) in Han and Jin period major medical classics.

한대(漢代)와 진대(晉代)의 주요 의학문헌에 나타난 족소음맥의 사후(死候)에 대한 묘사. 고딕체 문자는 상호 차이가 있는 부분을 표시.

문장1	
영추	足少陰氣絕，則骨枯。
난경	足少陰氣絕，則骨枯。
갑을경	足少陰氣絕，則骨枯。
맥경	足少陰氣絕，則骨枯。
문장2	
영추	少陰者，冬脈也，伏行而濡骨髓者也。
난경	少陰者，冬脈也，伏行而濡於骨髓。
갑을경	少陰者，冬脈也，伏行而濡骨髓者也。
맥경	少陰者，冬脈也，伏行而濡骨髓者也。
문장3.1	
영추	故骨不濡則不能着也，骨肉不相親則肉軟却，肉軟却，故齒長而垢，髮無澤，
난경	故骨髓不濡即肉不着骨，骨肉不相親即肉濡而却，肉濡而却，故齒長而枯，髮無潤澤，
갑을경	故骨不濡則肉不能着骨也，骨肉不相親則肉濡而却，肉濡而却，故齒長而垢，髮無潤澤，
맥경	故骨不濡則肉不能着骨也，骨肉不相親則肉濡而却，肉濡而却，故齒長而垢，髮無澤，
문장3.2	
영추	髮無澤者骨先死。
난경	無潤澤者骨先死。
갑을경	無潤澤者骨先死。
맥경	髮無澤者骨先死。
문장4	
영추	戊篤己死。土勝水也。
난경	戊日篤，己日死。
갑을경	戊篤己死。土勝水也。
맥경	戊篤己死。土勝水也。

영추 = 黃帝內經·靈樞·經脈, 난경 = 黃帝八十一難經·二十四難, 갑을경 = 黃帝鍼灸甲乙經·卷二·十二經脈絡脈支別第一·上, 맥경 = 脈經·卷三·腎膀胱部第五

Table 5. The description on the terminal stage symptoms of the foot Jueyin meridian (足厥陰脈) in Han and Jin period major medical classics.

한대(漢代)와 진대(晉代)의 주요 의학문헌에 나타난 족궤음맥의 사후(死候)에 대한 묘사. 고딕체 문자는 상호 차이가 있는 부분을 표시.

문장1	
영추	足厥陰氣絕，則筋絕。
난경	足厥陰氣絕，即筋縮，引卵與舌卷。
갑을경	足厥陰氣絕，則筋弛。
맥경	足厥陰氣絕，則筋縮，引卵與舌。
문장2	
영추	厥陰者，肝脈也；肝者，筋之合也；筋者聚于陰器，而脈絡于舌本也。
난경	厥陰者，肝脈也；肝者，筋之合也；筋者聚於陰器，而絡於舌本。
갑을경	厥陰者，肝脈也；肝者，筋之合也；筋者聚於陰器，而脈絡於舌本。
맥경	厥陰者，肝脈也；肝者，筋之合也；筋者聚於陰器，而脈絡於舌本。
문장3.1	
영추	故脈弗榮則筋急，筋急則引舌與卵，
난경	故脈不營則筋縮急，即引卵與舌，
갑을경	故脈弗營則筋縮急，筋縮急則引卵與舌，
맥경	故脈弗營則筋縮急，筋縮急則引舌與卵，
문장3.2	
영추	故唇青舌卷卵縮，則筋先死。
난경	故舌卷卵縮，此筋先死。
갑을경	故唇青舌卷卵縮，則筋先死。
맥경	故唇青舌卷卵縮，則筋先死。
문장4	
영추	庚篤辛死。金勝木也。
난경	庚日篤，辛日死。
갑을경	庚篤辛死。金勝木也。
맥경	庚篤辛死。金勝木也。

영추 = 黃帝內經·靈樞·經脈, 난경 = 黃帝八十一難經·二十四難, 갑을경 = 黃帝鍼灸甲乙經·卷二·十二經脈絡脈支別第一上, 맥경 = 脈經·卷三·肝膽部第一

IV. 고찰

1. 오장맥 사후의 형성 과정

위에 제시한 몇 가지 문헌의 내용을 살펴 보면 『황제내경·영추』 「경맥」편의 오장맥 사후(死候)가 확립된 과정과 그 이후의 초기 전승 과정을 재구성해 볼 수 있다.

1) 황제내경 오장맥 사후의 형성

첫 단계인 오장맥 사후 형성을 보면, 몇 가지 위중 증상이 인체 구성 성분과 연결되고 이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 경우 환자는 언제 사망하는가, 즉 환자의 예후를 추가로 설명한 단계로 이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장가산(張家山) 출토 문헌인 『맥서(脈書)』(기원전 186년 매장)와 마왕퇴(馬王堆) 출토 문헌인 『음양맥사후(陰陽脈死候)』(기원전 168년 매장)에는 5종의 위중 증상과 이 증상이 나타날 때 사멸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 조직(성분)만 언급하였으나 천회진(天回鎮) 출토 문헌 『맥서·상경(脈書·上經)』(기원전 157년~기원전 111년 사이에 매장)에는 이러한 내용과 함께 각각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 환자의 예후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설명되어 있다. 또한 장가산 문헌 『맥서』와 마왕퇴 문헌 『음양맥사후』를 비교해 보면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눈에 띄는데, 두 문헌 사이에 혈(血)의 사후(死候)와 기(氣)의 사후가 뒤바뀌어 있다는 점이다. 땀이 실 가닥처럼 배출된 후 피부 위에 뭉쳐 흐르지 않는 증상[汗出如絲, 搏而不流]이 장가산 의서 『맥서』에는 기(氣)의 사멸에 수반되는 증상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마왕퇴 의서 『음양맥사후』에는 이것이 혈(血)의 사멸에 수반되는 증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맥서』에 등장하는 혈의 사후(死候)는 역으로 『음양맥사후』에 기의 사후로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증상과 인체 조직의 연결에 혼란을 보였던 전한 전기의 상황은, 당시 인체 구성 요소에 대한 의학 지식 체계가 『황제내경』이나 『난경』에서 보이는 완전

하고 고정된 형태로 정착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장부(臟腑), 경락(經絡), 육기(六氣) 등 인체 내외의 여러 요소가 오체(五體 = 皮, 脈, 肉, 筋, 骨)와 고정적, 체계적으로 연결된 『황제내경』 성립 시기에 비해 전한 전기에는 장상학(臟象學)의 전체적인 구조가 없이 단지 증상과 조직을 직접 연결하는 시도가 이루어졌으므로 그 연결의 유동성이 컸으리라 생각된다. 다시 말해, 구조를 갖춘 배경 이론 없이 현상에 즉자적 설명을 제시하기만 해서는 그것이 확정된 형태로 의자들 사이에 정착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음양맥사후』에서 뒤바뀌었던 기, 혈과 그 사후(死候)의 연결은 천회진 출토 의서 『맥서·상경』에서 다시 원래의 형태(『맥서』의 형태)로 되돌아 가게 되고 이 형태가 그대로 『황제내경』에 전승된다.

『황제내경·영추』의 「경맥」편에는 위의 세 문헌(『맥서』, 『음양맥사후』, 『맥서·상경』)에 보이는 오장맥 사후에 여러 이론적 요소가 첨가되어 있다. 『맥서·상경』에 처음 보인 각 부류의 예후가 날짜의 천간(天干) 속성에 맞춰 정형화된 형태로 등장하고 있으며 다섯 조직과 연결된 증상이 5개의 경맥, 즉 수태음맥, 수소음맥, 족태음맥, 족厥음맥, 족소음맥과 관계를 맺고 있다. 아울러 병리 기전[病機]에 대한 서술이 추가되었다. 또한 5개의 음경맥이 모두 종말을 맞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6개의 양경맥이 모두 종말을 맞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추가되어 총 7개 부류의 사후(死候)로 확장된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2) 황제내경 이후 오장맥 사후의 초기 변동

여기에 보이는 『황제내경』의 오장맥 사후의 텍스트가 성립된 이후 이는 『난경』, 『갑을경』, 『맥경』에 비슷한 형태로 다시 나타나는데 문장의 세부적 내용을 살펴보면 서로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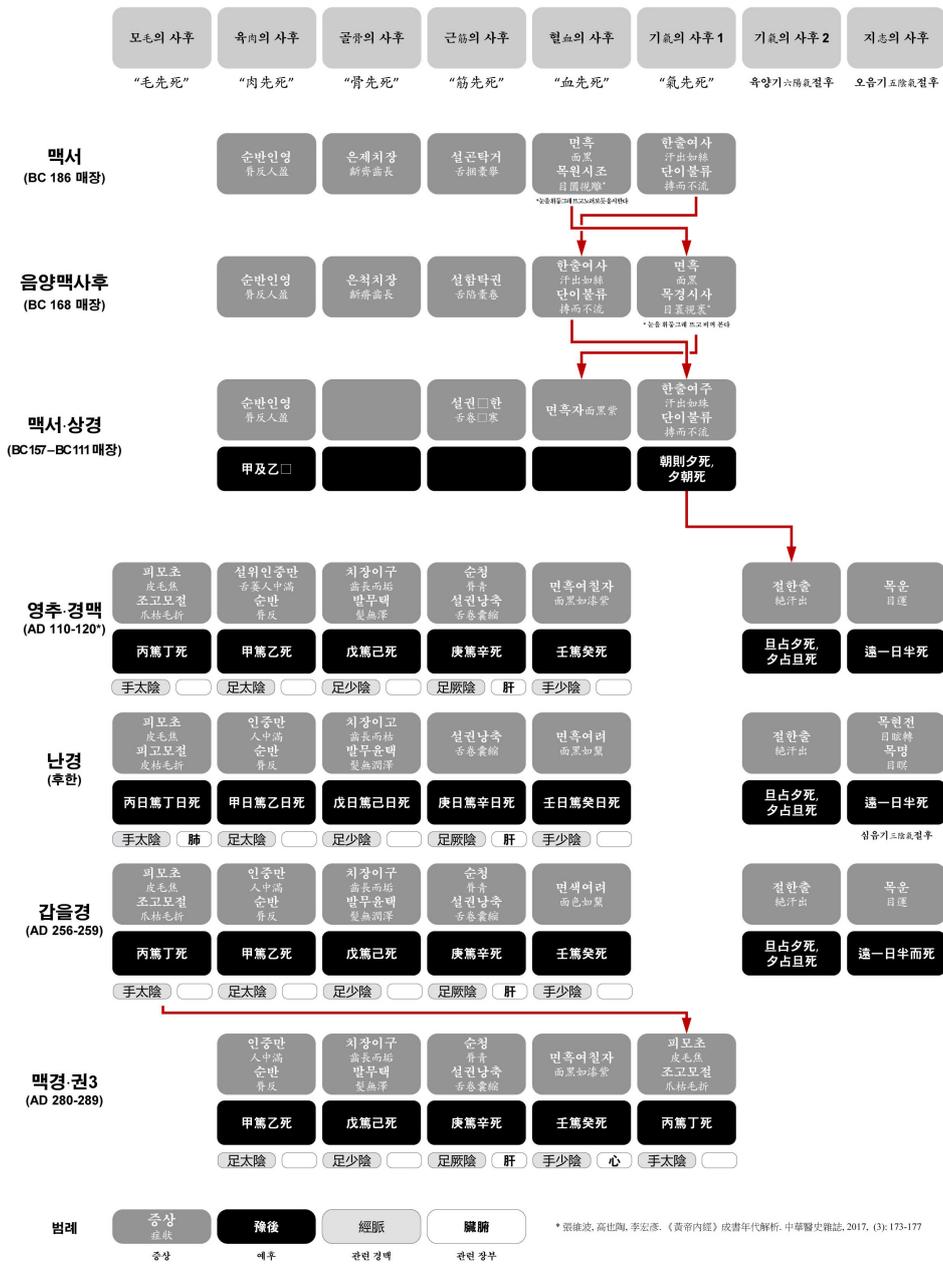


Figure 1. Formation procedure and later modulation of the terminal stage symptoms of Five Viscera' Meridians in *Jingmai*, *Huandineijing Lingshu*.

『황제내경·영추·경맥』 오장맥 사후의 형성 및 변천 과정.

오장맥 사후와 관련하여 이들 문헌에서 주목할 만한 차이점은 오장맥 사후와 장부(臟腑)의 연결이다. 『황제내경·영추』 「경맥」편에서는 근(筋)의 사후에 대해서만 이것이 간이라는 장부에 연관됨을 설명하였으나(“厥陰

者, 肝脈也”) 『난경』에서는 모(毛)의 사후가 폐와 연결되었고(“太陰者, 肺也”), 『맥경』에는 혈(血)의 사후가 심과 연결되었다(“少陰者, 心脈也”). 『황제내경·영추』 「경맥」편의 오장맥 사후 설명과 『황제내경』 전체의 이론

적 설명을 고려할 때 「경맥」편의 오장맥 사후가 충분히 장부와의 연관을 염두에 두고 기술되었다 생각할 수 있기는 하나, 각각의 증상에 연결되는 장부의 직접적 표현을 기준으로 보자면 『황제내경』 이후 문헌의 편집 과정에서 장부와의 연결이 추가되는 추세를 살펴볼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요약하면, 5종 조직의 사멸 징후가 먼저 확립되었고 이어 각각의 예후가 추가되었으며 이어서 이 증후들과 관련된 경맥이 제시되었고 마지막으로 장부와의 연계가 보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증상 → 예후 → 경맥 → 장부의 순서로 오장맥 사후에 관련된 지식이 확장되었던 것이다. 그림 2(Figure 2)에 이 과정을 도시한다.

2. 인체 구성 성분 분류 체계의 변동과 오장맥 사후의 관계

위에서 설명한 『맥서』, 『음양맥사후』, 『맥서·하경』의 사후(死候)는 육(肉), 근(筋), 골(骨), 기(氣), 혈(血)의 5종 인체 성분의 사멸 징후에 해당한다. 여기서 이 5종의 요소는 현상 자체에서 직접 관찰되는 요소가 아니고 아니라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이론적 개념에 해당한다. 『황제내경』 이전에 형성된 5종 성분의 사후가 『황제내경·영추·경맥』의 7종 사후로 변화하는 데는 인체 구성 성분에 대한 설명 체계의 변동, 즉 장상학(臟象學) 이론의 구조적 변동이 관여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인체 구성 성분의 분류 체계는 『황제내경』 이전에는 상당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전국시대의 문헌 『관자(管子)』의 「수지(水地)」편에는 소위 '오육(五肉)'으로서 격(膈), 뇌(腦), 혁(革), 육(肉), 골(骨)을 언급하였으며 전한 초기 문헌 『회남자』의 「추형훈(墜形訓)」에는 피혁(皮革), 육(肉), 근(筋), 골간(骨幹), 혈맥(血脈)을 언급하였다. 또다른 전한 초기의 문헌인 마왕퇴 출토 의서 『태산서(胎產書)』에는 인체 조직 발생 순서를 언급하며 호모(毫毛), 부혁(膚革), 근(筋), 골(骨), 혈

(血), 기(氣)의 6종 요소를 제시하였다. 전한 초기까지의 이러한 인체 성분 분류는 『황제내경』의 정형화된 분류와 꽤 거리가 있고, 그 내용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고대 문헌에서 인체 구성 성분으로 언급한 요소 가운데는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고정 성분, 즉 신체 조직들이고 또 하나는 유동 성분, 즉 체내의 유체들이다. 전자는 피(皮), 맥(脈), 육(肉), 근(筋), 골(骨)의 소위 오체(五體)가 대표적인 지칭 대상이고, 후자에는 기(氣), 혈(血), 진(津), 액(液), 정(精), 신(神)의 여섯 요소가 포함된다. 이 둘은 형태와 기능이 다르므로 장상학 지식의 형성 과정에서 점차로 명확히 분리되어 서로 다른 부류로 취급되는데 처음에는 그러한 분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한 초기 문헌인 장가산(張家山) 출토 의서 『맥서(脈書)』에는 유동 성분인 혈(血), 기(氣)에 고정 성분인 육(肉), 근(筋), 골(骨) 또는 육, 근, 골, 맥(脈)을 더한 인체 구성 성분을 나열하고 있고 비슷한 시기의 문헌인 마왕퇴(馬王堆) 출토 의서 『음양맥사후(陰陽脈死候)』에도 혈, 기에 육, 근, 골을 더한 인체 구성 성분의 분류를 제시하였다. 이는 천회진(天回鎭)에서 출토된 전한 중기 의서 『맥서·상경(脈書·上經)』에도 보이며 천회진 출토 의서 『맥서·하경(脈書·下經)』에는 혈, 기에 육, 근, 골, 맥을 더한 분류가 또다시 나타난다. 이러한 인체 성분 분류 체계는 당시까지 고정 조직과 유동 성분의 분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황제내경』에 이르르면 이러한 고정 성분과 유동 성분이 분리된 모습이 확인된다. 『황제내경·소문』의 「선명오기(宣明五氣)」편에는 오장이 관장하는 요소로서 고정 성분이라 할 수 있는 피(皮), 맥(脈), 육(肉), 근(筋), 골(骨)의 5종 요소만을 언급하였고 이러한 분류 형태는 『황제내경·영추』의 「구침론(九鍼論)」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황제내경·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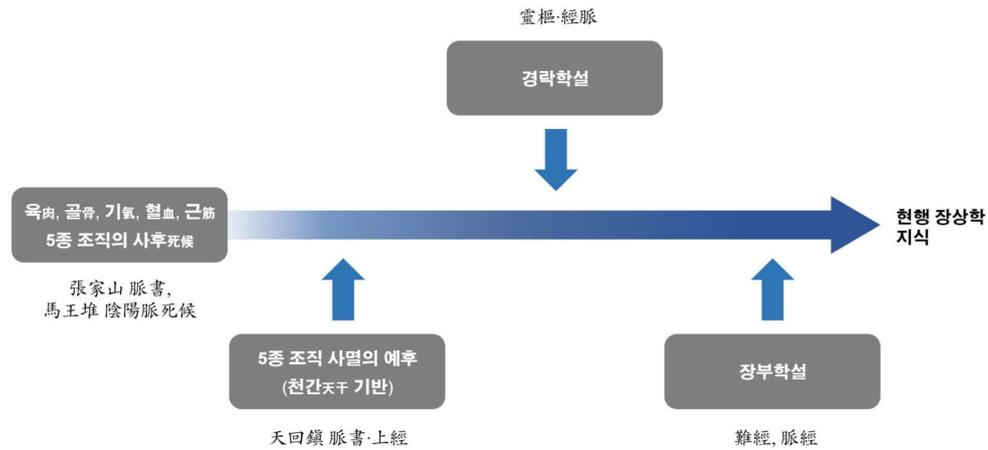


Figure 2. Formation The overall flow of the descriptions on the terminal stage symptoms of Five Viscera' Meridians in *Jingmai*, *Huandineijing Lingshu*.

『황제내경·영추』 오장맥 사후의 형성과 변천 과정

의 「금궤진언론(金匱眞言論)」에는 다섯 방위와 연관된 질병 이환 조직으로서 피모(皮毛), 맥(脈), 육(肉), 근(筋), 골(骨)을 언급하였으며 「음양응상대론(陰陽應象大論)」과 「오운행대론(五運行大論)」에도 이 다섯 요소가 인체 구성 요소(소위 ‘體’)로서 등장한다. 후한 시기의 의서 『황제팔십일난경(黃帝八十一難經)』의 5년과 14년에는 이것이 피모, 맥, 기육(肌肉), 근, 골의 형태로 나타난다.

인체 구성 성분을 피, 맥, 육, 근, 골로 언급한 형태는 전한 중기에 매장된 천회진(天回鎮) 출토 의서 『역순오색맥장험정신(逆順五色脈臧驗精神)』에도 보인다. 이 시기에 이미 일부 문헌에서는 혈, 기 등의 유동성분을 피, 맥, 육, 근, 골의 고정성분과 분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체 구성 성분에 대한 분류 체계의 변동을 살펴보면 『맥서』, 『음양맥사후』, 『맥서·상경』에 보이는 인체 구성 성분의 사멸 징후(소위 “五死”)는 아직 인체 구성 성분을 고정 성분과 유동 성분으로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던 단계에서 이루어진, 현상(발현 증상)의 이론적 요소와의 연결이라 생각할 수 있다. 즉 이 시기에는 혈, 기라는 유동 요소와 육, 근, 골이라는 고정 요소가 함

께 증상을 설명할 요소로 등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조직 사멸 징후는 『황제내경·영추·경맥』에서 오장의 경맥과 결부된 모(毛), 육, 근, 골과 혈(血)이란 요소에 관계를 맺게 되어, 오장 경맥의 사후(死候)로 정리된다. 그런데 여기에는 모, 육, 근, 골이라는 고정 요소에 혈이라는 유동 요소가 여전히 혼합되어 있다. 왜 이러한 고정·유동 요소의 미분리 현상이 남아 있는 것일까? 이는 일종의 과도기적 형태라 생각되는데, 이런 모습이 잔존한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영추·경맥』의 오장맥 사후에서 혈(血)이란 유동 요소가 남아 있는 것은 선행 문헌의 “오사(五死)”에 관한 내용을 완전히 폐기하지 않고 되도록 이를 수용하고 확장한 형태로 오장맥 사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모습으로 생각된다. 즉 선행 문헌에서 “혈선사(血先死)”로 표현된 조직 사멸 징후들을 “맥선사(脈先死)”로 바꾸기보다는 선행 문헌의 표현을 계승하는 입장에서 그대로 “혈선사”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하는 것이 「경맥」편의 이 단락에 여전히 남아 있는 기의 사후(六陽氣絕候)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더 어울리는 형태였을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요약하면, 전국시대로부터

Table 6. The body compositions showed in Warring states period to Han dynasty classics. Shadowded rows represent the forms focussed by the present thesis.

전국시대(戰國時代)~한대(漢代)의 문헌에 나타난 인체 구성 성분. 음영이 표시된 줄은 본 논고에서 주목한 오장맥 사후의 연관조직을 나타낸다.

출전	고정 조직	유동 성분	유형
管子·水地(五肉)	隔 腦 革 肉 骨		초기의 다양한 형식
淮南子·墜形訓	皮革 肉 筋 骨幹 血脈		
倉公列傳	肌肉 筋 骨 血脈		
胎產書(人體發生)	毫毛 膚革 筋 骨	血 氣	
靈樞·經脈(人體發生)	毛髮 皮膚 肉 筋 骨 脈		
逆順五色脈臧驗精神(組織生成)	肉 脈	血 氣	
(天回鎮)脈書·下經	肉 筋 骨 脈	血 氣	「기혈 + 고정 조직」 형식
(張家山)脈書·六痛	肉 筋 骨 脈	血 氣	
脈書, 陰陽脈死候(五死)	肉 筋 骨	血 氣	
(天回鎮)脈書·上經(五死)	肉 筋 骨	血 氣	
靈樞·九鍼論(五勞, 五走)	肉 筋 骨	血 氣	
素問·宣明五氣(五勞所傷)	肉 筋 骨	血 氣	
逆順五色脈臧驗精神(五色所乘)	皮 肉 筋 骨 脈		표준 형식
靈樞·九鍼論(五主)	皮 肌 筋 骨 脈		
素問·宣明五氣(五藏所主)	皮 肉 筋 骨 脈		
素問·金匱真言論/陰陽應象大論/五運行大論(五體)	皮毛 肉 筋 骨 脈		
難經·五難/十四難	皮毛 肌肉 筋 骨 血脈		
素問·陰陽應象大論(五臟所生)	皮毛 肉 筋 骨	血	
靈樞·經脈(五臟脈絕候)	毛 肉 筋 骨	血	표준형식에서 ‘맥’을 ‘혈’로 대체함
難經·二十四難	毛 肉 筋 骨	血	
靈樞·決氣	脈	血 氣 精 津 液	유동성분 위 주 분류
素問·調經論		氣 精 津 液	

후한의 『황제내경』 편집 시기에 이르기까지 인체 구성 성분은 고정 성분과 유동 성분으로 나누어 정형화되어갔으며, 이 과정에서 전한시대 출토 문헌에 보이는 “오사(五死)”의 연관 조직이 『황제내경·영추』 「경맥」편에 보이는 오장 연관 조직으로 바뀌어 수용되었

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고찰 대상이 되는 전후의 관련 문헌에 보이는 인체 구성 요소의 분류 체계 변동을 표 6(Table 6)에 요약한다.

이상의 논의와 별도로, 조직 사멸 징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한 가지 내용을 추가

로 소개하고자 한다. 천회진 출토 의서 『발리(發理)』에는 현재 「오사(五死)」라 명명된 단락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형(形), 기(氣), 심(心), 지(志), 신(神) 5종 요소의 사멸에 수반되는 증상과 예후를 설명하고 있다¹⁴⁾. 이 단락의 내용은 현행 『황제내경』에 제대로 계승되어 있지 않은 듯하나 앞서 살핀 『영추·경맥』의 경기 단절 7종 증후 가운데 5개 음경맥의 기가 모두 끊어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五陰氣絕候)을 “지선사(志先死)”의 증상으로 묘사한 것을 보면 『영추·경맥』의 저자들이 선행문헌의 5종 사후를 수합한 후 7종 증후로 확장할 때 『발리』의 「오사」 또는 이와 유사한 선행문헌의 내용을 참조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전한시대 의서 편집에서 오장맥 사후의 편성 위치 변동

현행 『황제내경·영추·경맥』에는 오장맥의 사후가 12경맥의 주행과 병증, 치법을 설명한 단락¹⁵⁾에 이어 등장한다. 이러한 배치 순서는 장가산(張家山) 출토 의서 『맥서(脈書)』에서도 보이고 마왕퇴(馬王堆) 출토 의서에서도 『음양십일맥구경』의 뒤에 『음양맥사후』가 편집되어 있음을 볼 때, 동일한 형태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보면 애초에 인체 조직의 “사후(死候)”(소위 “五死”)는 경락학설과 연계된 지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된다. 그런데 천회진(天回鎭) 출토 의서 『맥서·상경』에서는 “사후”의 출현 위치가 전혀 다르다. 『맥서·상경』의 내용을 보면 “사후”의 전후를 채우고 있는 내용은 모두

오색을 중심으로 하는 망진(望診) 지식이다. “사후”의 앞에 등장하는 내용은 아마도 안면의 망진에 관한 내용인 듯하고 “사후”의 뒤에 등장하는 내용은 아마도 눈의 망진에 관한 내용인 듯하다. 천회진 출토 의서, 즉 천회의간(天回醫簡) 가운데 “사후”가 배치되기에 알맞은 위치는 『맥서·하경』의 「십이경맥(十二經脈)」의 바로 뒷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처럼 적절하지 않은 위치에 “사후”가 삽입된 것은 당시 문헌의 불안정한 모습, 즉 “사후”가 독립된 저작으로 취급되지 못하여 여러 다른 내용과 연결된 채 편집된 정황을 보여준다. 근래에 출토된 죽간 문헌들을 보면 이와 같은 단위 저작물의 유동 현상은 전한 중기까지 종종 나타나던 현상이었다. 특히 의학 문헌에서 여러 차례 확인되는 현상이다¹⁶⁾.

하지만 천회의간(天回醫簡)에는 「십이경맥」 외에, 『황제내경·영추·경맥』에 보다 근접한 형태의 경락학설을 다룬 『경맥』이라는 또 다른 경락학 저작이 존재하는데 이 문헌은 훼손이 심하여 전모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문헌의 끝 부분에 “人有病平臍，死；脣反人盈，肉死”라는 문장이 보이는데, 이 문장도 인체 구성 성분의 “사후”를 설명한 내용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 천회의간 편집 시기에 “사후”를 경락학설 뒤에 삽입하여 설명한 문헌 편집 형태와 경락학설 이외의 내용을 설명한 곳에 삽입해 편찬한 문헌 편집 형태가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체 조직의 “사후”는 전한 중기까지 제자리를 잡지 못한 채 의서의 이곳저곳에 삽입되다가 『황제내경』 편집 단계에서 확실하게 「경맥」의 일부분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14) 내용은 다음과 같다: 病有五死: 一曰形死, 二曰氣死, 三曰心死, 四曰志死, 五曰神死。[所謂形死者] …… 所不足也。所謂氣死者, 癩而胸目也。所謂心死者 …… [也]。所謂志死者, 不敢明用耳目, 形軀四肢不能相使也。所謂神死者,] …… 氣志悲恐。此五者備具, 萬全必死。 …… 百全必死。三焉, 十全必死。有五焉, □火, 起所不足, 可愈也。不已, 起所有餘, 曰治; 起所不足, 曰死。

15) 이 부분은 「경맥」편의 핵심적 구성 성분이라 할 수 있다.

16) 일례로 청화대학(淸華大學) 소장 전국시대 죽간 잔편 『병방(病方)』은 의서도 아닌 수술류(數術類) 문헌인 『행칭(行稱)』에 연달아 편집되어 있다. 賈連翔. 略論淸華簡《行稱》的幾個問題. 文物. 2020; (9): 82.

V. 결론

이상에서 설명한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첫째, 『황제내경·영추·경맥』에 등장하는 오장맥(五臟脈)의 사후(死候)는 『맥서』, 『음양맥사후』, 『맥서·상경』 등의 전한시대 문헌에 연원을 두고 있다.

둘째, 현행 『황제내경·영추·경맥』의 오장맥 사후는 『맥서』, 『음양맥사후』의 “오사(五死)”에 『맥서·상경』에서 해당 증상의 예후가 추가되고 이어 『황제내경』 형성 과정에서 경락과의 연계가 이루어진 형태로 완성되었다.

셋째, 『황제내경』 성립 이후 『난경』, 『맥경』에서 오장맥 사후와 장부의 연계가 보강되는 모습을 보인다.

넷째, 오장맥 사후의 변천 과정은 인체 구성 성분에 관한 고대 의가들의 지식 체계 변동 과정, 즉 유동 성분과 고정 성분을 분리하여 인식하게 된 당시 의학 이론의 발전 과정과 연관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전한시대 의서의 “오사(五死)”는 확정된 편집 위치를 갖지 못하고 때로는 경맥학설 단락의 뒤에 편성되고 때로는 진단학설 단락 뒤에 편성되었다. 이러한 편집 위치의 유동 상황은 『황제내경』에 이르러 경락학설에 연결된 형태로 그 위치가 확정됨으로써 종료된다.

VI. 참고문헌

1. Ren Yingqiu. The index of phrases in the *Huandineijing*. Beijing. People's Medical Publishing House. 1986.
任應秋 主編. 黃帝內經章句索引.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2. The restoration group for the silk manuscripts excavated in the Mawangdui's Han dynasty tombs.

The translated texts of medical documents excavated in the Mawangdui's Han dynasty tombs, part one. Wenwu. 1975. (6). pp. 1-5.

馬王堆漢墓帛書整理小組. 馬王堆漢墓出土醫書釋文(一). 文物. 1975; (6): 1-5.

3. The restoration group for the bamboo strip manuscripts excavated in the Zhangjiashan's Han dynasty tombs in Jiangling. The translated texts of the *Maishu* excavated in the Zhangjiashan's Han dynasty tombs in Jiangling. Wenwu. 1989. (7). pp.72-74.

江陵張家山漢簡整理小組. 江陵張家山漢簡《脈書》釋文. 文物. 1989; (7): 72-74.

4. Zhou Yimou, Xiao Zuotao. Commentaries for the medical manuscripts excavated in Mawangdui. Tianjin. Tianjin Science and Technology Press. 1988.
周一謀, 蕭佐桃. 馬王堆醫書考注. 天津. 天津科學技術出版社. 1988.

5. Gao Dalun. The correction and translation of the *Maishu* excavated in the Zhangjiashan's Han dynasty tombs. Chengdu. Chengdu Press. 1922.
高大倫. 張家山漢簡《脈書》校釋. 成都. 成都出版社. 1992.

6. The restoration group for the Tianhuiyijian. Tianhuiyijian (upper and lower volume). Beijing. Cultural Relics Press. 2023.

天回醫簡整理組. 天回醫簡(上·下). 北京. 文物出版社. 2023.

7. Zhang Xinjun. Three topics on conjugated verification using the *Maishu* bamboo strips excavated in Jiangjiashan Han tombs and the *Yinyangmaisihou* silk roll excavated in Mawangdui.

Zhongguowenzixuebao. 2010. Vol 10.
pp.99-113.

張新俊. 張家山漢簡《脈書》與馬王堆帛書
《陰陽脈死候》合證三則. 中國文字學報. 2
019; 10: 99-113.

8. Han Houming. Collection and translation of the characters and words in the Jiangjiashan Han dynasty bamboo strips. PhD thesis of the Jilin University. 2018.

韓厚明. 張家山漢簡字詞集釋. 吉林大學
博士學位論文. 2018.

9. Jia Lianxiang. The brief discussions on several topics of the Qinghua University's bamboo strips *Xingcheng*. Wenwu. 2020. (9). pp.82-85.

賈連翔. 略論清華簡《行稱》的幾個問題.
文物. 2020; (9): 82-85.